



이재명 대통령-여야 대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공동공약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장동혁 대표,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2025.9.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민생경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여야 대표가 이 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지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 각 당이 실무협의체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께서

적극 화답,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우선 지난 대선의 공동 공약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경제 협의체 안건을 정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동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에서 국민이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장동혁 테마 있는 협의체 제안에 화답...李대통령 野는 성과, 與는 국정성공

실무 협의 예정 정례화 없이 국힘 요청 시 개최

대책을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실무 협의의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정부수석실이 당연히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여야에 따라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단위들이 실무 협의를 진행해서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협의체를 정례화하지 않고 야당 요청 등에 따라 열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얼마나 주기적으로 보기로 했느냐라는 물음에 "필요시 언제든지 만남을 요청하고 대통령께선 거기에 맞춰 화답하겠다고 하셨다"며 "현안이 생겼을 때 영수가 머리를 맞대고 편하게 풀어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언제든 제안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가 요청할 때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오후 1시 2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장 대표와 이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회동에서는 '정치 복원' 얘기가 주를 이뤘다고 한다.

장 대표는 획기적인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 민생 정책을 제안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이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으로 만났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은 지난 6월 22일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이후 78일 만이다.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면담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오찬을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정 대표와 장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서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악수를 거부해 온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또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 세 명이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짓는 모습도 연출됐다.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의 단독 회동에는 우 수석과 박 실장만 배석했다. 이날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진행됐다.

회동 결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브리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봉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에 "더센특검법·내란특판법" 거부권 행사 요구

첫 오찬회동서 "여·야·정 소통 창구 만들고 계속 열어주길 부탁

무리한 특검 수사, 국제적으로 인권유린·종교탄압으로 비칠 수 있어

"상대 죽이는 정치 끝내는 균형추 역할李대통령이 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첫 오찬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 아니겠냐고 국민께선 오해하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가 말한 '더 센 특검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체포·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장 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위해 대통령께서 정부와 여당,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출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고 그 소통 창구를 계속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여야와 정부가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상설 기구인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수사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국회도 야당은 없고 민주당 한 당만 보였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특검을 바라보길 과거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지

만 국제적으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장 대표는 "상법, 노란봉투법이 통과됐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강력한 적용을 말씀하시면서 건설 경기 악화, 내수 부진, 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기업들이 숨 쉬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수요자 욕구와는 거리가 먼 공급자 중심의 대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규제 중심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특정

집단을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조직 개편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한국인 체포 사태에 대해서 "동맹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왜 굳이 지금 한국인가, 외교적 합의가 어떤 건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이재봉 기자

